원 저

참고문헌 영문화 작업에 있어 영어번역의 전략

송호섭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Abstract

Strategy for English Translations of Journal Reference

Song Ho-sueb

Departmen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won University

Objectives : This study was to propose how to translate journal references into english for enhancing citation index of the journals published in the Korean Oriental Medical Society.

Methods : Journal reference is mainly composed of author name, title or book name, journal name such as Index Medicus or publisher name, etc. In order to find the appropriate equivalents to the above major constituents, head words extracted from all the references of Journal of Korean Oriental Medical Society published in 2002 to 2009.

A plan for English translation of the journal reference was formulated and the glossary was prepared.

Plan for English translation of the journal reference :

1. Author: Author name was represented as capitalized last name and two initials of first name and listed up to six. If there are more, the first three or six authors were listed with 'et al'.

2. Terminology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Standard korean traditional medical terminology was one of the current representative dictionary with as much as 6040 headwords, which was needed to be translated into English in order to provide substantial equivalents available for English translation of journal reference. Therefor 4361 english equivalents were to be newly adopted except for 1679 overlapped with them in WHO-IST. Source oriented translation and target oriented translation were allowed to be appropriately selected depending on the condition. In addition, principle of English translation of acupoint,medicinal Herbs, Herbal formula and classical works were proposed.

3. Basically the names of journals should be set in italics and abbreviated according to the List of journals indexed for medline (formerly Index Medicus) publish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 이 논문은 2011년도 경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KWU-2011-R158)
· 접수 : 2011. 6. 2. · 수정 : 2011. 6. 7. · 채택 : 2011. 6. 8.
· 교신저자 : 송호섭,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200-1번지 경원대학교 부속길한방병원 침구과
Tel. 070-7120-5012 E-mail : hssong70@kyungwon.ac.kr

however, abbrev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al journals were not yet established. Thus establishment of tentative korean index medicus should be considered.

Conclusions : For the enhancement of journal citation index of korean traditional medical journals, it was suggested that english translation of journal reference should be one of the alternatives enhancing citation rate.

Key words : English translation journal reference strategy

Ⅰ. 서 론

번역은 원어(source language)의 메시지에 대해 가장 근접하고 자연스러운 대응사를 재생산해내는 과정으로 대화, 교육과 교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1].

신석기 평등사회 이후 지배에 의해 문화가 정의되는 분위기에서 형성된 언어의 특징은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성향을 띠게 되어[2] 전 세계적으로 과학적 명명법의 대부분을 영어가 차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전통의학의 표준용어 역시 영어가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최근에 고조되고 있는 전통의학용어의 표준화 열기는 전통의학용어의 영어번역과정에서 전통의학 본유의 개념에 명확히 접근하기 위해 정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3]는 의견에 부응하며, 2007년 8월 4,000여 개의 WHO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y on Traditional Medicine, WHO-IST)를 제정 ≪WHO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집≫의 발간으로 이어졌다[4].

또한 이를 기반으로 2006년부터 진행되는 서태평양지역 의학저널 논문 색인(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이하 WPRIM) 구축 사업에 전통의학 분야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WPRIM은 서태평양 지역 회원국의 우수한 저널을 색인화하고, 서지정보를 구축하여 논문 전문에 쉽게 접근하게 하며, 동료 전문가간 심사를 통해 논문의 질과 저널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 대표로는 Koreanmed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5]. 대한한의학회는 한의학회지 및 산하 분과학회지의 참여를 위해 Koreanmed와 논의 결과 논문의 참고문헌이 인용가능하도록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받은 실정이다.

대한의학회 산하 학술지를 분석하여 인용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참고문헌을 영역화하거나 투고하고자 하는 학회지의 논문을 일정 편수 이상 인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었다. 이를 감안하면 '참고문헌의 영역화'가 유력한 대안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대한침구학회지≫도 저자들이 쉽게 참고문헌을 영역할 수 있도록 타당한 기준과 참고자료를 제시할 필요성이 있어 참고문헌 영역화의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방법 및 대상

참고문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저자, 논문제목이나 서적명, 저널명(Index Medicus)이나 출판사명과 권, 호수 및 페이지이다. 번역의 핵심은 적절한 대응사를 제시하는 것인 만큼 일단 ≪대한한의학회지≫의 참고문헌을 영역화의 대상으로 삼고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대한한의학회지≫에 게재된 논문들의 참고문헌을 수집하여 각 요소들 중 번역을 요하는 용어를 추출하였다. 용어 중 한의학 전문용어에는 한약 처방명, 고전명, 경혈명 등이 포함되어 적절한 대응사를 찾아야 하고, 대한한의학회 및 산하 분과학회지의 영문 저널명과 서적명은 물론 출판사의 영문명에 대한 대응사는 새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1차적으로 해당 기간 ≪대한한의학회지≫에서 추출한 용어에 대한 대응사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영역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되 그 용어가 전체 용어를 포괄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용어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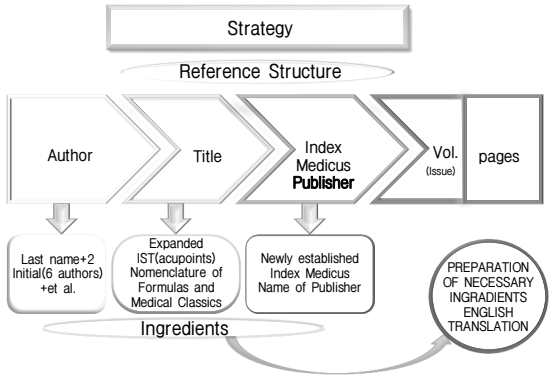

Fig. 1. Strategy for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

Ⅲ. 영역화 방안

1. 저자명

영문이름을 사용하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권상의 이름을 사용한다. 이름을 표기하는 방법은 성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하고 그대로 표기한다. 한 칸을 띄우고 이름은 알파벳 이니셜로 표기하되 한글이름이 세 글자 이상일 경우 앞의 두 글자에 해당하는 영문이니셜만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각의 이니셜 사이에는 불필요한 comma나 period, hyphen 같은 표시를 하지 않는다. 이름은 총 6명까지만 표기하고 각 이름 사이는 comma로 마지막 저자명 후에는 period를 찍는다. 6명 이상일 경우 6명까지는 그대로 표기하고 6번째 저자명 후에 comma를 하고 et al.을 붙인다. 만약 영문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네이버에 영문이름 작성방법이 제시된 바를 참고로 영문이름을 새로 만든다.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BF%B5%B9%AE%C0%CC%B8%A7&sm=top_hty&fbm=1

2. 한의학 전문용어

해당기간 ≪대한한의학회지≫에서 추출된 용어를 포괄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WHO-IST보다 확대된 형태의 영어 한의학용어집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합당한 것을 찾아보면 한국 실정에 맞는 용어를 중심으로 약 6,040개 용어로 구성된 ≪한의학표준용어집≫이 존재하는데 4,000여 개의 WHO-IST와는 약 1,679개의 용어만이 공통적으로 중첩된다. 따라서 4,361개의 한의학 전문용어가 WHO-IST 안에서는 대응사를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WHO-IST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영문번역을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4,361개 용어에 대한 대응사, 즉 영문표제어를 생성하여야 하는 만큼 영어 번역의 원칙을 수립하고 적절한 영어 대응사를 마련하여야 한다.

WHO-IST는 3차례 회의를 거쳐 아시아 전통의학 database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3개국인 한·중·일의 대표와 謝竹藩, Wiseman과 Unschuld 등 전통의학의 영어번역에 주도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만들어진 ≪WHO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집≫이다. 토론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IST의 구성은 謝竹藩의 Target-oriented Translation과 Wiseman의 Source-oriented Translation이 적절한 검토과정을 거쳐 합의에 의해 선택하는 방식을 취한 결과 두 방법에 의한 대응사가 혼재되어 있다.

이를 참고로 6,040개의 한의학 전문용어를 번역하는 원칙을 수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WHO-IST 내에서 대응사를 찾을 수 있는 1,679개의 용어는 해당 IST의 표제어를 대응사로 그대로 사용한다.

둘째, 4,361 개의 용어는 IST와 비슷한 선택과정을 통해 동질성을 유지하도록 Nigel Wiseman의 ≪A Practical Dictionary of Chinese Medicine≫[6]이나 ≪Chinese-English Dictionary of Chinese Medicine CD version 4(2005)≫[7] 謝竹藩의 ≪Standard TCM Nomenclature: On the Standard of Nomenclature of Basic Chinese Medical Terms≫[8]를 참고로 하여 대응사를 찾는다.

셋째, 두 개의 사전에도 수재되어 있지 않은 한의학용어의 경우 Target-oriented Translation과 Source-oriented Translation의 번역 방법에 의해 각각 대응사를 마련하고, 생성된 대응사를 검토하여 합당한 것을 취사선택하거나 때로는 양자를 병기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면 風火眼의 경우 Target-oriented Translation을 하면 'acute conjunctivitis'가, Source-oriented Translation에 의하면 'wind fire eye'가 대응사가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넷째, 經穴은 WHO WPRO 표준경혈위치[9]에 따라 혈명의 한글로마자표기와 혈위기호를 병기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를 들면 合谷의 경우 Hapgok, LI4로 표기하는 것이다.

다섯째, 본초는 영어, 라틴생약명을 병기하되 라틴학명이 없는 경우 영어를 우선으로 하고, 종명(genus name)을 앞에 둔다.

여섯째, 방제명의 경우 Source-oriented Translation으로 영어명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일관된 방법으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白虎湯의 경우 white tiger decoction으로 번역하는 것인데 桂枝湯의 경우 桂枝는 본초명이므로 桂와 枝에 대한 영어 대응사를 따로 두어서는 곤란하다. 이 경우 중국측에서는 originality가 있는 국가의 발음에 따르는 romanization의 원칙에 의거 병음으로 계지를 Guizhi로 하고 뒤에 decoction을 붙여 번역한다. Wiseman의 경우도 방제명에 대해서는 Source-oriented Translation 방식의 한계를 느끼고, 대부분 병음사용을 하였다. 그러나 방제명의 경우 단순히 영어번역의 문제를 떠나 이해관계에 의한 복잡성이 있어 일본의 경우 방제명에 대해 자신들의 가타카나로 독음을 달고, 그것을 kampo formula라고 하여 한약제제 시장의 선점을 노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므로 기존의 한의학회지 투고규정의 내용을 검토수정하여 개선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존 ≪대한한의학회지≫ 투고규정

한약처방명은 HWP상에서 한글로마자표기 자동변환을 이용하여 한글로마자표기를 사용한다. 알파벳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고 각 음절은 붙여쓰기를 하며, 한글로마자발음과 정의를 기반으로 한 번역과의 사이에는 '-'을 두고 정의를 기반으로 번역한 湯, 散, 丸같은 劑型을 뜻하는 단어는 hyphen(-)을 사용한 뒤 소문자로 표시한다. 湯, 散, 丸, 膏는 각각, decoction, powder, pill, paste로 번역한다. 예를 들면 마황탕의 경우 Mahuang-decoction으로 한다.

개선안

① 처방명의 영문구성은 처방이름+정의를 위한 번역으로 이루어지는데 영문 처방명에 대한 표준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가표준안을 먼저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국의 발음에 준하여 처방명을 작성하는 romanization의 원칙이 필요하다. 처방의 출전을 살펴 해당 국가의 romanization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대부분 중국 출전 처방임을 감안하면 병음이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처방명의 경우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므로 일본의 경우도 Kampo formula라고 하여 ≪상한론≫의 대부분 처방을 소리나는 대로 일본 가타카나로 표기하는 것을 국가 표준으로 삼고 있다. 이 점을 참고로 한국국가표준을 마련하여 한글로마자표기를 할 수도 있다.

② 우선 ≪대한한의학회지≫를 분석하여 보고된 논문에 취급되고 있는 처방명을 모두 추렸고, 처방명을 한글로마자표기+정의를 기반으로 한 번역의 형태로 구성하였다. 한글로마자표기와 정의를 기반으로 한 번역의 알파벳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였고, 대한한의학회 투고규정에서 하이폰을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하이픈 없이 한 칸을 띄우는 형태로 전환하였다. 또한 정의를 위한 번역은 아래와 같이 내용을 확대하여 제시하였다.

湯, 飮, 煎 - decoction
散 - powder
丸 - pill, 원(고급제형에 붙이는 말. 원은 환으로)
膏 - paste
丹 - vermilion pill
片 - tablet
錠 - troche

③ ≪대한한의학회지≫에서 추려진 처방이라도 중국국가표준으로 볼 수 있는 병음표기 처방명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처방은 병음표기+정의를 기반으로 한 번역의 형태를 병기하였고, ≪대한한의학회지≫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처방은 병음+정의를 기반으로 한 번역의 형태를 일단 제시하였다. 만약 논의를 거쳐 한글로마자표기+정의를 기반으로 한 번역의 형태로 바꾸기로 결정된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미나 가감의 표현의 경우 처방명 앞에 붙이는 것만 허용하고, 이 경우 가미(Gami or Jiawei), 가감(Gagam or Jiajian)을 처방명과 한 칸 띄우고 첫 알파벳은 대문자로 표기한다. 처방명 뒤의 가미 또는 가감 혹은 가 본초명의 형태는 가미 또는 가감+처방명의 형태로 모두 통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면 加味補中益氣湯의 경우 Gami Bojungikgi Decoction으로 표기하고, 加減六味地黃丸의 경우 Gagam Yungmijihwang Pill로 번역하는 것이다.

일곱째, 책제목의 경우 영문제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없다면 전통의학 전문서적(고의서)의 경우 1차적으로 WHO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WHO-IST)를 참조한다. 그래도 없을 시를 대비하여 ≪대한한의학회지≫상에서 자주 인용되는 다빈도 단행본을 추출하여 Nigel Wiseman의 ≪A Practical Dictionary of Chinese Medicine≫(1998, 2nd Edition, Paradigm Press)나 ≪Chinese-English Dictionary of Chinese Medicine≫ CD version 4(2005), 謝竹藩의 책에 수록된 고서의 영문책 이름을 추가하고, 일부 한의학서적명을 새로 번역하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WHO 전통의학 국제 표준용어(WHO-IST)의 확대된 참고자료를 마련한다. 이러한 방법으로도 참고자료가 없다면 책의 출전을 살펴 해당국가의 romanization에 의거한 표기를 한다. 즉 한국책은 한글로마자 변환으로 표시하고, 중국책은 병음으로 표기한다.

참고문헌의 책제목 표기 방식은 책의 이름을 번자체로 그대로 제시하고, '[ ]' 표시 안에 영역화한 영문제목을 넣어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영문서적명(대응사)을 제시하고 '[ ]' 표시 안에 책의 출전에 따라 주로 in (old) Korean or in Chinese이라는 언어명을 표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동의보감≫의 경우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in old Korean']이나 ≪東醫寶鑑≫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으로 표기한다.

3. 가칭 Korean(Oriental) Index Medicus

잡지명의 경우 기본적으로 항상 약어를 쓰고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알파벳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는데 저널의 약어명을 잘 모를 때에는 http://nlmpubs.nlm.nih.gov/online/journals/ljiweb.pdf의 the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2008의 List of Journals Indexed를 참고로 한다.

2009년 3월 현재 Index Medicus나 Medline에 등재된 국내 저널 약어명을 알고자 할 때는 http://medlib.yu.ac.kr/kjournal/j_list/index_medicus_09_03.htm을 참조하고, Index Medicus나 Medline에 등재되지 않은 대한 의학회 저널 약어명은 http://komci.org/KoMCIPrint.php?left=2008&right=komci2008을 참조한다. 한의학 저널의 경우 아직 공식화된 약어명이 없으므로 참고문헌 영문화를 위해서는 ≪대한한의학회지≫ 및 산하 분과학회지의 영문저널 약어명 즉, 가칭 Korean (Oriental) Index Medicus를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한침구학회의 경우 J Korean Acupunct Moxibust Soc(JKAMS) 등의 안을 제시할 수 있고, 향후 e-journal 등의 활용을 위해서도 논의를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

Ⅳ. 고 찰

1970년 Nixon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여 침술마취 후 충수염수술을 하는 환자를 목격하는 사건이 보도되면서 미국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킨 후 아시아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며 침구학이나 중의학 교육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교육에 필요한 교과서는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내용이 부실하여 곤란을 겪었다. 이를 계기로 미국 내 아시아 전통의학에 대한 영어 저작물이 쏟아져 나왔고, 일부 고전에 대한 번역서가 등장하였다. 교육을 위해서는 전통의학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번역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토론기회를 마련하지 못하던 중 2006년 10월 19일 Arizona주에서 AAOM (American Acupuncturist for the practitioner of Oriental Medicine)의 주최로 '용어와 번역'이라는 주제에 대한 symposium이 개최되어 전문가들이 견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중요한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다[1].

Newmark[10]는 그의 저서 ≪Text book of Translation≫에서 번역은 재생산(reproduction)으로 가장 자연스럽고 가까운 대응사(equivalent)를 찾는 것이므로, 아시아 전통의학의 영어번역에는 영어를 원어민처럼 구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박한 전통의학 지식을 갖추고 일관성 있는 문체로 적절히 기술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고 하였다.

아시아 전통의학의 영어번역에는 R Roberts[11]의 human translation을 위주로 원어를 목적어로 바꿀 때 원어와 목적어의 관계에 집중하여야 하고,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므로 특정전문분야 특히 전문가들에 의한 상당한 전문성을 요할 때 사용하는 방식인 J Delislie[12]의 specialized translation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 번역의 기법 중 주류를 이루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Target-oriented translation과 Source-oriented translation이다. Target-oriented translation은 謝竹蕃이 주로 주장하는 것으로 아시아 전통의학용어는

매우 전문적인 것이어서 영어번역 시 단어 대 단어의 번역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므로 단어의 뉘앙스에 해당하는 영어단어를 대응사로 해야한다는 것이다. Source-oriented translation은 1974년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Chinese Medicine≫을 저술한 Manfred Pokert의 정신을 계승하여 Nigel Wiseman이 주장하는 바로 전통의학용어에 대한 목적어의 합당한 대응사를 찾을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원어가 전통의학의 전문용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전문용어의 경우 평소 접하지 못하던 용어라 하더라도 일관된 방법, 즉 단어 대 단어 번역 방식으로 목적어의 대응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Wiseman은 그 논거로 서양의 경우도 의학용어와 같은 전문용어는 일반 독자는 이해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학습에 의해 익혀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하였고, 단어 대 단어로 만들어진 대응사가 다소 생소하지만 목적어를 사용하는 독자가 이를 만나면 일단 한 번 생각할 시간을 가지게 되며, 뒤에 적절한 glossary를 두어 학습하면 향후에는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기존 중의학의 영어번역 시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복잡하게 만들어 봐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속단에서 내용을 지나치게 간략화 한 점이 문제이고, 둘째, 뉘앙스 위주의 번역이라는 미명 아래 전통 중의학의 징후, 증상, 증(후군) 및 병명을 서양의학의 sign, symptom, syndrome 및 disease name으로 대응사를 사용하는 것, 즉 疝을 hernia, 膿을 abscess로, 淋을 dysuria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셋째, 표준화된 전문용어 어휘집(glossary)의 부족과 부적절한 용어를 대응사로 사용하여 혼란을 야기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는 주로 補瀉로 'tonify'와 'sedate'를 사용하였는데 'tonify'는 원래 영어 사전에는 없는 신조어로 tonic에서 만들어 진 것이 기이하게 사용되고 있고, 'sedate'는 瀉의 의미가 'draw off'나 'allow to flow'라는 점에서 보면 어의가 다른 잘못된 대응사를 선택한 경우이다. 이렇듯 지금까지 부정확하고 일관성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대응사인줄 알면서도 지금까지 사용해서 굳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사용해 온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Wiseman 1990, p. xlvii).

2007년 8월 4,000여 개의 WHO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WHO International Standard Terminology on Traditional Medicine, WHO-IST)를 제정하였는데 당시 한국 대표단의 원칙은 전체적으로는 Nigel Wiseman의 의견에 더욱 무게를 싣고 있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謝竹蕃의 Target-oriented Translation과 Nigel Wiseman의 Source-oriented Translation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었고, 주로 두 사람의 의견을 병기하고 각국의 대표들이 합의에 의해서 용어를 선택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WHO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집은 Target-oriented Translation과 Source-oriented Translation이 혼재된 용어로 구성되었다.

WPRIM의 출범 후 학회지의 인용지수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고, 대안으로 참고문헌의 영문화나 투고 시 해당 학회지의 논문을 일정 편수 이상 인용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대한의학회 산하의 25개 의학회지와 대한한의학회 산하의 9개 한의학회지의 투고규정상 참고문헌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여 살펴본 결과 참고문헌을 영어로 작성하기를 권고하는 학회지는 한의학회지 중 ≪대한한의학회지≫와 ≪대한약침학회지≫ 두 종을 포함하여 18개 학회지로 주로 참고문헌을 영문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의 구성요소는 저자, 논문제목, 서적명이나 저널명, 권호수 및 페이지이다. 참고문헌을 영문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성요소에 포함된 한의학 전문용어에 대한 적절한 영어 대응사를 찾아야 하므로 WHO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집의 제정 이후 실제로 전통의학용어의 영어번역을 시도하는 경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WHO 전통의학 국제표준용어집의 4,000여 개 용어를 활용하면 된다고 간단히 생각할 수 있으나 6,040개 용어로 구성된 ≪한의학표준용어집≫의 용어 중 겨우 1,679개 용어만이 WHO- IST와 공통적으로 중첩된다. 따라서 4,361개의 한의학 전문용어가 WHO-IST 안에서는 대응사를 찾기 어렵고,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참고문헌의 영문 번역시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한의학 전문용어는 WHO-IST를 확대한 가칭 영문 표준한의학 용어집을 마련하여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4,361개의 대응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Nigel Wiseman과 謝竹蕃의 번역 방식과 참고서적을 최대한 활용하고, 참고서적상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은 용어의 경우 대응사를 직접 제시하려면 타당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가능한 방안을 먼저 수립하고, 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였다. 물론 IST에서와 같이 Nigel Wiseman의 안을 중점적으로 수용하

였다.

훌륭한 번역가의 조건이 목적어를 원어민과 같이 구사하고, 전통의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해박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나름대로 영문 표준한의학 용어집 작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한 관건은 마련된 번역방안을 바탕으로 일관성을 유지하기위해 번역 방법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기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WHO-IST 기준대로 氣·陰陽은 각각 'Qi'·'Yinyang'으로 병음으로 기술하고, ~證의 경우 'syndrome/pattern of~'의 형태를 유지하며, 補瀉의 경우 각각 'supplement'와 'drain'으로 통일하되 침구학의 경우 'reinforce'와 'reduce'를 사용한다. WHO-IST 기준을 확대하여 양도락의 경우 WHO-IST에서 인정된 바는 아니지만 1950년 日本의 中谷에 의해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romanization의 'Ryodoraku'를 대응사로 인정하거나, 'well conducting collateral'로 번역하는 것, 또는 양자를 모두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證 앞의 변증명은 그 구조가 주로 네 글자의 명사+동사구 내지는 명사+명사의 형태가 가장 많으므로 명사+동사구의 경우 명사+동사~ing 혹은 ~ed와 명사+명사의 형태로 번역하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간기범위의 경우 명사+동사의 형태이므로 liver qi invading the stomach으로, 肝脾不和의 경우 명사+명사의 형태이므로 liver spleen disharmony로 번역하는 것이다.

셋째, 두 글자의 경우 명사가 주류를 이루므로 각각의 대응사로 이루어진 복합 명사의 형태로 번역하여야 하는데 예를 들면 어혈은 blood stasis, 간수는 liver edema 등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넷째, WHO-IST에서 Target-Translation과 Source Translation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상황에 맞게 양자 중 선택하되 부자연스럽지 않는 한 양자를 함께 제시한다. 예를 들면 大雷頭風의 경우 전자로는 severe headache 정도로 해석해야 하나 병증명이 워낙 독특한 것이어서 후자의 방법을 선택하여 big thunder head wind로 대응사를 마련하고, 重齦은 후자로는 double gingiva나 전자의 epulis를 선택하며, 走馬喉痺의 경우 전자의 acute laryngitis와 후자의 running horse throat impediment를, 牛程足蹇의 경우 전자의 tarsal carbuncle과 후자의 cripple cow on the road를 병기하는 것이다.

다섯째, 한의학 고유의 용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응사를 제시한다.

예를 들면 사암침법의 正方과 勝方의 대응사를 찾아야 했는데 각각 허증과 실증에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正에 reinforce를 勝에 reduce를 대응시키고, 방에 prescription보다는 method를 대응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正方을 reinforcing method로, 勝方을 reducing method로 통일하여 번역한다. 즉 肝勝方과 肝正方의 경우 liver reducing method와 liver reinforcing method로 번역하는 것이다. 또한 사상체질의학에 관한 표제어에 대해 살펴본 결과 사실상 표제어로 볼 수 없는 太陰人肝受熱裡熱病, 太陰人肝熱熱證瘟病이나 頷臆臍腹 등이 표제어로 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적절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일단 대응사를 제시한다면 각각 interior heat disease induced by the affected liver heat of greater Yin person과 epidemic febrile disease induced by affected liver heat of greater Yin person과 chin chest umblicus abdomen으로 할 수 있다. 사상인의 性氣에 대해서는 성에 nature 또는 temperament를 기에는 Qi를 각각 대응시켜 nature (temperament) Qi로 제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섯째, 침구치료의 수기법 명칭에서 다소 문학적인 문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수기의 형태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대로 문장을 살리는 형태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면 蒼龜探穴, 靑龍擺尾, 赤鳳迎源, 子午搗臼 등은 각각 blue tortoise searches hole, blue dragon vibrates tail, red phoenix flaps, midnight-midday pounds 등으로 하거나 뒤에 목적어가 없는 赤鳳迎源, 子午搗臼는 red phoenix flapping method, midnight-midday pounding method로 번역하고, 이것이 침의 수기라는 표시, 즉 one of the needling technique를 첨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곱째, 경혈명과 한약처방명의 경우 한글발음, 즉 한글 로마자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경혈의 경우 WHO WPRO 표준경혈위치에 따라 혈명의 한글로마자표기와 혈위기호를 병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한약처방명의 경우 한글로마자표기+정의를 기반으로 한 번역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글로마자표기와 정의를 기반으로 한 번역의 알파벳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며, 한글로마자표기와 정의를 기

반으로 한 번역 사이에는 한 칸을 띄우고, 정의를 기반으로 한 번역은 탕, 음을 decoction으로, 산을 powder로, 환이나 원을 pill로, 단을 vermilion pill로, 편을 tablet으로, 정을 troche로 하는 방식을 잘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角孫을 Gakson, TE20으로 표기하고 청폐사간탕을 Cheongpyesagan Decoction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또한 한약명은 영어명과 생약명을 동시에 표기하고, 한의학 서적명의 경우 원어민의 표현이 아니면 번역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므로 가급적 Wiseman의 서적과 같은 전통의학용어의 원어민 사전이나 원어민의 전통의학 출판물상의 영문명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기존의 자료에 나타나 있지 않은 서적명을 번역해야 할 경우에는 번역 후 원어민의 감수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여덟째, 생소한 용어에 대한 대응사를 잘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竟, 黴毒 등 a kind of arrangement of fingers(differentiating long pulse from short one), mold(such as candidas)로 제시하는 것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홉째, 유사한 표현을 될 수 있는 대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표현 중에 ~induced by나 due to~의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결국 비슷한 표현이므로 하나로 통일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외에도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의학 전문용어 번역을 위한 영문 표준한의학 용어집의 완정성을 갖추기 위해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의학 전문용어 이외에도 참고문헌의 영문화를 위해 영문번역작업이 필요한 참고문헌 구성요소에는 대표적으로 저널명과 출판사명이 있다. 방안에 가칭 'Korean(Oriental) Index Medicus'를 제안하였는데 가안 작성 시 검토한 사항을 바탕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riental을 Orient로, meridian을 merid로 moxibustion을 moxibust로 constitution을 const로, prescription을 prescript로, pharmacopuncture를 pharmacopunct로 naturopathy를 naturopath로 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 차제에 한의학에 대한 공식명칭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Oriental medicine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traditional Korean medicine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Korean medicine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각 학회의 영문명칭 및 index medicus는 각 학회 편집위원장이 모인 자리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바 index medicus의 필요성과 함께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최대한 분과학회에서 작성한 안을 존중하되 개명을 제안할 몇몇 사항을 지적하자면 경락진단학회는 잡지명을 개명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락경혈학회와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중풍학회와 추나학회, 형상의학회, 맥진학회, 침도학회도 개명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소문학회, 스포츠한의학회, 복치학회 등 정확한 영문학회명 및 잡지명이 없는 학회는 권고된 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영문명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영문잡지명 못지않게 대부분 출판사가 영문명칭을 갖추고 있지 않아 출판사명 역시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개인 기업이 대부분이므로 각 출판사에 공문을 보내어 해당 출판사의 영문명을 확정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고, 해당 출판사의 영문명 결정 시 도움을 주기 위한 영문명 작성요령 정도를 제시할 필요성은 있다.

논문의 인용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참고문헌을 영문화하는 작업은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참고문헌의 영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편의성을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므로 확실한 영문화의 기준을 제시하고,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그 성패에 관건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번역의 전략을 제시하고, 가능한 한 충분한 자료를 마련하여 학회지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외적으로 대한한의학회 및 그 산하 대한침구학회가 WPRIM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마련된 안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임원진과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요망하는 바이다.

Ⅴ. 결 론

1. 氣, 陰陽은 각각 Qi, Yinyang으로 병음으로 기술하고, ~證의 경우 syndrome/pattern of~의 형태를 유지하며, 補瀉의 경우 각각 supplement와 drain으로 통일하되 침구학의 경우 reinforce와 reduce를 사용한다.
2. ~證 앞의 변증명은 명사+동사구의 경우 명사+

동사~ing 혹은 ~ed와 명사+명사의 형태로 번역하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3. 두 글자의 경우 명사가 주류를 이루므로 각각의 대응사로 이루어진 복합 명사의 형태로 번역한다.
4. Target-Translation과 Source Translation 방식을 상황에 맞게 양자 중 선택하되 부자연스럽지 않는 한 양자를 함께 제시한다.
5. 한의학 고유의 용어에 대해서는 적합한 대응사를 고안하여 합의에 도달하여야 한다.
6. 침구치료의 수기법 명칭은 수기의 형태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대로 문장을 살리는 형태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7. 경혈명과 한약처방명의 경우 한글발음, 즉 한글로마자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경혈의 경우 WHO WPRO 표준경혈위치에 따라 혈명의 한글로마자표기와 혈위기호를 병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한약처방명의 경우 한글로마자표기+정의를 기반으로 한 번역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생소한 용어는 검토 후 용어의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포함 결정 후에는 대응사를 잘 마련할 필요가 있다.
9. 유사한 표현을 될 수 있는 대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10. 참고문헌의 영문화를 위해 영문번역작업이 필요한 참고문헌 구성요소에는 대표적으로 저널명과 출판사명이 있는데, 해당 학회 및 출판사와의 논의를 거쳐 'Korean(Oriental) Index Medicus' 및 출판사 영문명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VI. 참고문헌

1. Miki Shima. Asian Nomenclature Debate Position Paper.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 Exposition; 2006 Oct 19 ; Arizona, USA. Arizona : AAOM. 2006.
2. Elsler R. The Chalice and the Blade: Our History, Our Future. San Francisco : Harper & Row. 1987.
3. William R Morris. Origin-The naming.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 Exposition. 2006 Oct 19 ; Arizona, USA. Arizona: AAOM; 2006.
4. WPRO. International Terminologies on traditional medicin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Manila : WPRO. 2007 : 13-277.
5. WHO. Western Pacific Region Index Medicus (WPRIM)[Internet]. Manila : WHO Western Pacific Region[cited 2010 May 15]. available from : http: //www.wpro.who.int/information_sources/library_services/wprim.htm.
6. Nigel Wiseman. A Practical Dictionary of Chinese Medicine. 2nd Edition. Brookline, Massachusetts: Paradigm Press. 1998.
7. Nigel Wiseman. Chinese-English Dictionary of Chinese Medicine. CD version 4. 2005.
8. Xie Zhu-Fan. Standard TCM Nomenclature: On the Standard of Nomenclature of Basic Chinese Medical Terms (IV). CJIM. 2003 ; 9(2) : 148-51.
9. WHO 서태평양지역. WHO WPRO 표준경혈위치. 서울 : 엘스비어코리아. 2009 : 27-223.
10. Newmark P. About Translation: Multilingual Matters. Clevedon, Philadelphia : Multilingual Matters Ltd. 1991.
11. R Roberts. Towards a Typology of Translations, Hieronymus Complutensis. EL Mondo del la Traduction. 1995 ; 1 : 61-79.
12. J Delislie. L'analyse du discours comme une methode de traduction: Initiation a la traduction francise de texts pragratiques anglais. Ottawa, Canada : University of Ottawa Press. 1980 : 29-34.